

대전을 자연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1 취임소감

대전은 교통, 물류를 기반으로 한 중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전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에는 국내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기관인 KAIST를 비롯하여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정부대전청사, 자운대, 군수사령부 등이 위치하여 과학, 행정, 국방 도시로서 국가적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3대 하천의 생태공원화와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하여 3대 공원(수목원, 유림공원, 호수공원), 자전거길 조성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환경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각종 발전정책을 개발하여 시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대전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고, 인적자원개발센터, 경제교육센터의 운영과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뛰어난 대전의 성장여건을 바탕으로 대전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연구도시에서 과학산업도시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대전의 경제를 키우고 일 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2 현재 연구원이 수행중인 주된 연구 과제는?

대전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대전시 발전 5개년계획,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WTA 장기발전계획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녹색성장의 주요사업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자전거 도시 대전 만들기, 나무심기와 저탄소도시 실현방안, 온실가스 저감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연구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재래시장 육성방안,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광역경제권 공동개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유성의 계룡스파텔 활용,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보문산 아쿠아리움,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민선4기 결산, 홍명상가 철거 등 대전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및 공공기관 유치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이외에 지역발전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시민경제교육사업 등을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족공동체포럼, 창조도시포럼,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한 여론수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 내년도 계획 중인 연구과제나 향후 해보고 싶은 과제는?

대전의 미래비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미래경쟁력 1위 도시 실현을 위한 대전미래전략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덕특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녹색기술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굴뚝 없는 경제성장과 전 지구적 환경보전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산업화 전략과 녹색성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녹색첨단기술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과 3대 하천 친환경수변 개발로 대전이 자연과 삶이 어울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고 싶습니다.

대전의 도시 인프라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우수한 의료기반입니다. 우수한 의료기관을 확보하면 대전은 물론 영·호남권의 의료수요를 수용하여 의료시장의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한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4 한발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대학의 학문과 대전시 행정의 접목 방안은?

저는 대학에서 토목, 도시계획, 환경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20여 년간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과 중앙의 행정기관에 자문활동을 통해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물과 공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해 왔습니다. 또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기본구상을 연구, 자문하였습니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고통과 혼란이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선진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추구해온 도시공공 기반구축분야의 연구경험은 이상과 현실을 묶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전의 지금까지 성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대전이 녹색성장의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녹색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녹색환경 문화정책과 녹색기술 산업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전의 3대하천은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갑천과 유등천은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적 건강성 회복과 수변 및 여가공간으로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천은 목적교 복원사업 및 대전천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을 되살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성과는 녹색기술 산업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녹색기술로 대표되는 에너지 기후관련 기술, 전자정보기술, 소재나노기술 등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이 대전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연구원, KAIST,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보유한 녹색교통의 철도 핵심기술 및 부품의 산업화로 대전을 철도행정의 중심도시에서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6 현재 대전시의 환경정책 평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해주시다면?

대전시는 지금까지 3대 하천 생태하천화, 3천만그루 나무심기, 3대 공원(수목원, 유림공원, 갑천호수공원) 조성, 자투리 공간의 쌈지공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기, 목적교 복원사업, 금고동 LFG발전시설, CNG 버스 도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전시의 녹색사업의 방향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신임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 취임식, 2009년 10월 5일.



7 대전시가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은 무엇이고 돌파구가 있다면?

대전의 강점은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커서 사회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도시자산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부권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환경, 도로 등 도시 기반이 잘 갖춰진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점을 꼽는다면 여러 지역에서 이주한 특성으로 인해 애항심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낮다는 점과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이 지역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고, 대덕의 기술이 대전에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민·관·연·학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시정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연구과제 설정 방향은?

대전의 도시 패러다임이 과학기술도시에서 과학산업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이 산업·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덕특구의 연구기술이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유치 및 외국의 첨단기술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녹색도시로서의 발전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의 중요 축 중에 하나인 철도의 중심기능이 대전에 있으므로 철도 핵심기술 및 부품의 산업화로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자전거도로, 도심 3대 하천 정비를 통한 수변 및 여가공간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지역 및 중앙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유치, 행정구역 개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논리를 개발,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9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대전발전연구원 자체 조직 운영 방향

우리 연구원의 정규 연구 인력은 총 21명으로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연구원은 도시행정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시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고 질 높은 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인력수급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점검하여 연구수요가 급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전국 대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체 조직운영 방향으로는 현 직제인 3실 1처(기획조정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사무처)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1세기 세계 도시를 지향하는 대전광역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활기찬 도시,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정다운 도시' 를 비전으로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발전, 글로벌 시장경제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현황을 진단 평가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정책을 연구개발해 대전시에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시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항상 시정을 모니터링하고 시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집행부서와 시의회,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